

화순군 유기농재배 늘려 쌀값 하락 극복한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직불제 확대·새끼우렁이 공급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보급 등에 10억여원 지원

화순군이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에 나선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친환경직불제,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상토,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사업 등 10억 2600만원 규모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세부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화순군은 지난 3월에는 지역증진 및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했다.
토양개량제는 지난 2016년 17만포 4억 6500만원을 집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19만 8000포(5억 3900만원)로 공급을 확대했다.
화순군은 상반기 16만8000포를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논농사가 끝난 이후 3만포

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또 4월 벼육묘용 못자리상토로 흙상토 2160톤, 포대상토 13만3200포, 매트상토 10만6650매를 공급했다.
군은 이달부터는 4억 7000만원을 들여 4322ha에 새끼우렁이 4만7000kg을 공급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이 같은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벼 친환경 단지별 세부 농가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접수하도록 유도했으며, 2016년 기준 6300만원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올해에는 10억 2600만원까지 확대하고 국비 지원을 확

정받았다.
이는 전남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예산 21억 7400만원의 47%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순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061-379-3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단지조성사업 등 확대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전과 자연을 살리고 농업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유두석(왼쪽) 장성군수가 최근 지역민들과 함께 셋강 살리기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황룡강 셋강 살리기 선포

환경지킴이 26명 위촉

장성주민들이 지역 대표 자원인 황룡강 환경지킴이로 나선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새마을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황룡강 셋강 살리기 선포식’을 열고 환경지킴이 26명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마을 회원들로 구성된 환경지킴이들은 앞으로 평소 황룡강으로 유입되는 셋강의 오염원을 사전에 감시하고, 생활속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홍보활동에 나서게 된다.
장성군 새마을회가 주축이 돼 추진할 ‘황룡강 셋강 살리기’는 장성의 대표 자원인 황룡강 수질을 생화학적 산소요구

량(BOD) 2.0PPM이하로 청정하게 지키는 게 목표다.
군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면서 주기적인 수질조사와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 정화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오봉원 장성군새마을회장은 “장성 황룡강은 영산강 상류 지역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마을 앞 도랑부터 청정하게 지켜간다면 황룡강이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민들과 황룡강을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마을 곳곳에 예쁜 꽃동산을 조성해 옅로우시디 장성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군민회관 ‘작은 영화관’ 10월 개관

화순군은 “화순읍 화순군민회관에 작은영화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화순군은 10억원을 들여 군민회관 2~3층을 리모델링해 2개관 100석 규모의 영화관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군민회관 일대에서 열리는 국화축제에 맞춰 영화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모를 거쳐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화관이 개관하면 주민들이 광주까지 먼 거리를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다음달 2일까지 영화관 명칭을 공모하며,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나 우편 또는 FAX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담양 죽녹원 올 봄 관광객 18만명 찾아

올해 ‘봄 여행주간’에 전남 담양군 죽녹원 관광객이 전국 주요 관광지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봄 여행 주간(4월 29일~5월 14일)에 죽녹원 방문객은 18만3820명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 46

곳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1813명보다 29.6% 많은 것이다.
죽녹원은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과 연결되는 담양의 주요 관광지로서 한국인이라면 꼭 봐야 할 추천 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에 2년 연속 포함됐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세계 각국 대표 장미꽃 경연장...장성 평림담 1만5000송이 만개

장성 삼계면 평림담 장미공원 내 1만 5000여 송이의 장미가 만개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색색의 장미가 식재돼 매년 7만명 인파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올해

는 옅로우시디 장성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노란 장미들이 식재돼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는 게 장성군의 설명이다. <장성군 제공>

담양군-부산 동래구 교육특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 워크숍·업무협약

담양군은 “최근 담양 죽녹원 내 월파관에서 부산시 동래구와 교육특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문학 교육특구 담양군과 문화 교육특구 동래구 양 기관이 특구사업과 규제 특례법 적용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현안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인적·물적 자원의 폭넓은 교류 및 상호 발전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는 31개 교육특구가 지정돼 있으며, 담양군과 동래구가 맺은 이번 교육특구 간 최초의 업무협약은 앞으로 타 교육특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길을 여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앞으로 전국지역특구교육협의회를 설립하는 데 참여 주체들의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3월 ‘담양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 인문학 콘텐츠

개발, 인문학 융·복합 활성화, 인본중심 인문학 계승 발전, 인문학 인프라 구축 등 4개 특화사업과 가사문화 페스티벌 및 탐방프로그램 등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래구는 앞서 지난 2015년 11월 동래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됐으며, ‘열수조터!’라는 특구 슬로건으로 전통문화 계승발전, 동래교육콘텐츠사업, 동래문화교육인프라구축, 지역경제 재창조 등 4가지 추진 과제와 동래유성역사축제 등 17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여성·어린이 등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화순군 9월부터 시행

화순군이 여성,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한다.
화순군은 “화순경찰서와 공동으로 ‘안전한 화순’을 위해 택시 이용 안심귀가 서비스를 오는 9월까지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는 관내 택시 안에 바코드를 부착해 모바일 앱과 연동해 차량위치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모바일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택시 이용시 택시 뒷 자석 2군데와 조수석 등에 부착된 안심스태커(QR코드)에 갖다 대면 문자가 가족에게 자동 전송된다.
택시범죄 방지는 물론 차량 내 분실물 발생 시에도 승하차 정보 조회를 통해 자신이 탑승한 차량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택시이용 중 긴급 상황 발생시 안심스태커에 스마트폰을 두 번 갖다 대면 전화 통화 없이 자신의 위치를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문자 전송해 경찰의 빠른 출동을 유도할 수 있다.
군은 화순 관내 개인택시 70대, 법인택시 66대 등 136대를 대상으로 안심귀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 1억원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돌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광양, ㉸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 (중동 라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6억 5천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
- 7층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법인체 인수가능
- 시세 및 감정 - 7억
- 급매 - 4억 8천 5백만원 (대출 4억 2천 5백만원 포함)
- 주인직매
- H.010-3605-5000